

급성 제5형 견봉쇄골관절탈구의 치료

Surgical Treatment of Acute Type-V Acromioclavicular Injuries

김승기 임기현

가톨릭대학교부속 의정부 성모병원 정형외과

견봉쇄골관절의 탈구는 교통사고, 각종 운동경기, 낙상등으로 발생되며 인대 손상의 정도에 따라 Allman은 3가지 형으로 Rockwood와 Green은 6가지 형으로 분류했으며 견봉쇄골인대와 오구쇄골인대의 파열이 함께 있는 3형 이상에서는 견봉쇄골관절의 완전 탈구가 생긴다고 했다. 제3형 손상의 치료에 대하여는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간에 논란이 많으나 탈구가 심한 제5형 손상은 대부분의 저자들이 수술적 가교를 권장하면서도 치료 결과를 분석한 문헌이 적다. 저자들은 1995년 3월에서 1997년 2월까지 가톨릭대학교부속 의정부 성모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한 견봉쇄골관절손상 환자 102례중 제5형 손상에 대하여 Modified Bosworth 방법과 삼각근과 승모근의 봉합을 통한 수술적 가교를 시행하고 이중 1년이상 추시가 가능했던 15례의 치료결과에 대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